
2019년 제6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2019. 5.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청탁금지법 준수사항 안내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 해당하여, 미술작품심의 위원들은 심의와 관련된 신청자 또는 이해당사자와 개별접촉(전화, 대면 등)의 회피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방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청탁을 위한 접촉을 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회 회의 시 공표하도록 하고, 심의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술작품심의의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 향응,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최근 청탁성 전화 및 문자 등의 사례와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 시 이를 공표하고 심의에 반영함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2호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2019년 제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

<회의개요>

- ◆ 일 시: 2019. 5. 9.(목) 14:00~18:00
- ◆ 장 소: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 참 석: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 ◆ 안 건: 총 13건 17작품 (조각 14작품, 회화 3작품)
- ◆ 결 과: 승인 11작품, 부결 6작품

위원장: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별 개별채점방식으로 진행되며 개별 자료검토 및 토론 후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심사방식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방식을 제시하실 위원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 1번 안건: 영원한 빛-Cosmos

- 작품의 성격에 비해 주변 경관이 다소 복잡함, 작품 주위의 조경을 정리할 필요성 있음
- 장소에 대한 신선한 해석이 돋보임
- 작가의 섬세한 타공기법이 전혀 발휘될 수 없는 조형구성으로 평이해짐
- 전체적인 조형감을 조금 보완하면 괜찮아 보일 것으로 사료됨
- 색색이 변하는 것 보다는 한 가지 빛이 생성되었다가 소멸되어 가는 모습이 조각이 만들어 내는 야간 경관에서 더 어울릴 듯하다
- 평이한 형상이지만 시민과의 교감은 가능할 듯
- 작품 개념이 모호하고 조명이 과함
- 전체적으로 큰 무리 없는 작품이고, 이전의 4개의 작품보다는 훨씬 발전된 느낌

□ 2-1번 안건: 행복이 머무는 자리

- 주변 환경과 부조화
- 동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약함
- 동물 형상과 건축 환경이 잘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움
- 1차적 단순함은 있으나 친근감 있는 모티프로 구상화된 조형작품
- 단독으로 볼 때는 좋으나 군집으로 모여 있는 양상이 다소 어색함
- 특색 있는 작품은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 훨씬 좋음
- 디지털 이미지처럼 제작되지 않으면 자칫 괴기스러워 보일 수도 있음
- 상투적인 면 나눔으로 조형의 새로움을 찾기 어렵다
- 주민과 교감, 소통이 가능한 작품
- 작가의 작품 성향과는 잘 맞고 위트 있는 작품

□ 2-2번 안건: Circle

- 난형에 리듬감을 부여하여 좋으나 주변 구는 많아 보임
- 유사조형 작품 다수 존재
- 공간 규모에 비해 다소 둔탁한 느낌은 들지만 무난함
- 작가의 전작에 비해 평이한 느낌
- 귀여워 보이는 형상이나 내부에 낙엽 등이 들어가 오염될 경우를 대비하여야 할 것 같음
- 자연 속 에너지의 변화와 흐름이 타원의 구 안에 갇혀있어 의도한 운동감과 동적 에너지를 느끼기 어렵다
- 평이한 장식적 요소의 조형물로 작가의 특성 또한 부재
- 본인의 원래 작품은 밀도 있고 좋은데 공공미술에는 잘 반영되지 않은 느낌
- 리듬감이 느껴지고, 시각적인 느낌이 확 와닿는 좋은 작품
- 구 들이 너무 많은 느낌이라, 없으면 가장 좋고, 있더라도 하나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음
- 기존 작업을 봤을 때는 보완을 하셔서 심의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은 느낌
- 심의 통과 시 작은 구(큰 조형물에 접합되어 있는 구)의 수를 줄이는 부분을 권고 요망

□ 3번 안건: 탈주의 기동

- 작품성, 조형성 모두 좋음
-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지는 않음
- 동일한 형상만을 사용함이 작가의 아이덴티티는 아님
- 둔탁한 모티프와 개연성이 부족한 기계적 조형의 반복 같은 느낌
- 독특한 구성이 돋보이는 창의적인 작품으로 공간과 조화됨
- 기계적 구조의 미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생각함
- 흔하지 않은 조형적 요소가 재미있음

□ 4번 안건: 공존

- 회화 작품에 비해 조각 작품의 조각적 해석이 일반적임
- 환경과 어울리지 않음
- 미술적 상상의 의미가 모호
- 작품이 평면적으로 감상하는 특성이 있는데 건축물의 방향과 나란한지 직각인지가 제출 도서로는 판단이 어려움
- 이전 작품보다는 좋아졌으나 독창성을 찾기 어려움
- 작품 유지의 어려움이 있을 듯함
- 작가 경력과 작품의 관계가 이해되지 않음
- 서사적 이야기가 너무 구상적으로 표현되면서 작가가 의도하려는 미술적 상상이 의도만큼 보이지 않음
- 조각의 회화적 요소가 재미있음

□ 5번 안건: 어락원(魚樂園) 2019

- 표현 기법이 현대적이지 않음
- 독특한 소재로 흥미로운 구성, 다만 벽면에 비해 개수가 많아 보임
- 조금 평이하지만 친근함과 이야기가 있음
- 장식이 과한 편이고 산만하게 느껴짐
- 공간을 잘 이용한 작품
- 배경이 되는 우드패널의 한계로 인해 바다의 크기가 한정되어 답답한 낙원이 된 듯하다
- 코너 벽면을 이용한 것이 특이하나 부적절해보임
- 전작보다 후퇴한 느낌, 구성의 아쉬움
- 아기자기한 느낌
- 물고기들이 너무 많은 느낌
- 물고기가 작가의 개념인데 그것을 확장한 느낌

□ 6번 안건: 붉은 화분(POT ROUGE)

- 정말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지만 장소의 특성을 잘 고려했느냐는 의문
- 작품이 놓이는 둔덕이랑 작품의 기단이랑 잘 어울리지 않음
- 전체 공간에 비해서 조각의 크기가 적절한지 의문이 듦
- 미술사적 가치가 있는 작가로 장소와 잘 어울림
-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작가의 연작 중 하나, 설치 공간이 제한적인 점이 아쉬움
- 붉은 대형 화분은 정원박람회 등의 행사장에서 자주 보던 요소라 특별한 감흥을 느끼기 어려움
- 장소에는 적절하난 의료관광용 호텔의 이미지를 높이는 내용이면 더 좋을 것 같음
- 조각의 크기가 가로를 포함한 전체 공간의 크기와 적절한 비례인지 의심스럽다
-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 작품성이 지속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듦
- 작품은 좋지만 작품이 이 장소에 왔을 때 어떤 기능을 할지 떠올리기 어려움
- 작품 크기는 이대료가 적당한 것 같음, 크기가 엄청 크다고 감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함
- 건축물에 놓이는 작품의 특성상 수지라는 재질의 특성상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듦

□ 7번 안건: 자연의 움직임

- 색다르지는 않으나 깔끔하고 세련됨
- 조형적으로 너무나 많은 형태이므로 식상한 느낌이 듦
- 유사한 형태의 작품들과 변별이 안 됨
- 중심부의 모티프와 주된 조형요소인 라인과의 연계가 다소 어색해보이나 환경에는 큰 무리 없이 어울림
- 작가의 평소 작품 경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 추성적인 표현과 나뭇잎의 동거가 다소 어색해 보임, 차라리 나뭇잎이 없는 것이 상상력에 도움이 될 듯함
- 장소적 해석이 부족하고 개연성을 느끼기 어려움 조형 구성
- 속도, 방향, 순환의 이미지화가 내부의 나뭇잎으로 마무리되는 조형을 납득할 수 없다
- 중앙의 꽃잎이 전체적인 조형언어와 맞지 않음
- 율동적인 선의 구성은 리듬감이 느껴져서 좋음

□ 8번 안건: 바람에 이는 물길

- 장식적 요소 강함
- 작품의 질에 비해 가격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작가의 기존 작품과 맥락이 전혀 다름
- 작품의 조형성이나 색상이 재미있고, 주변과 건강한 긴장감을 자아냄
- 환경과 잘 어울림
- 조형적 독창성을 느끼기 어려움
- 조각이 놓이는 위치가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과 너무 가깝게 위치한 것 같은 느낌
- 기존 작가의 작품과 비교되는 좋은 작품으로 보임
- 힘이 있어 보이는 구성, 조금 더 크면 좋을 것 같음
- 이전에 했던 작품들보다 훨씬 좋은 작품

□ 9번 안건: 공간 안에서 구의 운동

- 신선한 작품
- 조형방식 자체가 센스 있는 느낌
- 판재의 개성 있는 교차연출로 유희적인 조형물을 만들어냄
- 독특한 조형미와 구성미가 돋보임
- 환경과 무리 없이 어울리는 친근한 작품
- 내부의 골조와 그를 둘러싼 형태 등이 유동적으로 인지되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
- 종이 공예를 보는 듯한 작품
- 작가의 특성이 잘 보이는 좋은 작품
- 개개의 단위로는 흥미로운 패턴을 가지지만 기둥의 형태로 구현되는 전체적인 조합에 있어서는 아쉬움

□ 10-1번 안건: The Forest - Four Seasons

- 불안정한 구조, 유지 보수 문제 있을 수 있음
- 건축 공간과 부조화
- 작가의 이전 작품과 차별을 느끼기 어려움
- 다른 곳에 설치된 작가의 기존 작업과 너무 비슷한 패턴
- 친근하고 익숙한 모티프의 반복에 의한 동심자극 조형, 다만 내러티브나 콘셉트의 개연성 부족한 전개로 인해 공허함이 느껴짐
- 풍선은 상큼한 느낌을 주지만 신선한 작품은 아님
- 풍선 작품이 이미 여럿 있어 평이하게 느껴짐
- 장소적 특성을 좀 더 고려하여 유사한 작업이 많음에서 오는 피로감을 줄였으면 좋겠음
- 풍선이 조금 더 이야기를 가졌으면 좋겠음
- 주민과의 교감이 가능한 무난한 작품

□ 10-2번 안건: 공간의 확장

- 장소와 잘 어울림
- 주변과 조화되고 소재의 특성이 잘 드러남
- 유사한 형태의 작품들이 많음
- 작품 개요 설명과는 괴리가 있으나, 재료나 조형적 형태에서 우러나오는 조형성이 있음
- 좋은 작업이지만 많이 본 형태로 지루함을 줄 수 있음
- 조형언어가 진부한 느낌이 있음

□ 11-1번 안건: 348West 22nd Street, New york, NY10011, USA2017

- 실내 건축 환경과 부조화
- 작가적 개성 부족 연출작품, 명성에 기댄 국제적 관례에 비추어서도 인건비/ 제작비, 기타 항목 등 작품가 과다
- 작품 자체는 좋으나 가격 과다한 느낌
- 모든 작품이 실내에 평면으로만 설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건축물 규모에 걸맞지 않는 작품, 조금 더 크기가 컸으면 좋겠음
- 실 드로잉, 주변과 잘 어울림
- 장소와 어울리는 작품 자체의 임팩트가 부족한 느낌
- 작품은 좋으나 전체적인 아우라가 건축물과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움
- 함께 설치되는 작품과 조화롭다고 보기 어려움
- 공간에 맞는 작품을 잘 고려했는지 의문이 듦
- 작가의 대표작으로 보이지도 않고, 장소와도 어울리지 않는 느낌
- 건축물 미술작품으로서의 공공성이 느껴지지 않음

□ 11-2번 안건: 묵안리 장수대

- 실내 건축 환경과 무난하게 잘 어울림
- 친근감 있고, 차분한 분위기로 연출된 회화작품이지만 설치 공간이 협소하여 작품 감상에는 다소 부적합
- 작품성 좋음

□ 12-1번 안건: Daybreak 2019 - The Garden

- 재미와 무게감이 공존
- 표현 방식이 진부한 느낌이 듭
- 낯선 모티프 때문인지 매력이나 맥락을 쉽게 찾기는 어려운 조형물
- 작가의 이전 작품에 비해 작품성이 다소 아쉬움
- 상, 하부의 조화가 부자연스러움
- 완결성은 좋으나 조형적 미감과 동일 기법의 2작품을 통해 다양한 예술적 체험을 하기는 어려움
- 거미줄의 구조를 입체화, 조각화한 좋은 작품
- 예술적 형태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
- 상징적으로 보이는 형상과 내용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음
- 작가의 이전 작품들의 기반은 정말 잘 어울리는데, 지금 이 작품은 기반과 너무 잘 어울리지 않음

□ 12-2번 안건: Daybreak 2019 - The Gallery

- 재미와 무게감이 공존
- 건축물 부분과 차별화되지 않는 요소에 작품으로서 아쉬운 개연 요소를 지닌 작품
- 검은 바탕이 압도적이라 작품의 인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신선한 접근
- 이미 있는 구조체를 본인 작품으로 잘 적용한 것 같음
- 기념비적인 형태가 주변과 어울릴지 고려해야함
- 마감 벽면의 돌 나눔이 조각에 의해 다시 디자인되어야 할 듯함
- 장식물과 작품의 구분이 불분명한 느낌이 있음
- 작품으로서보다 건물의 외관 조형 요소로 보일 가능성이 커 보임
- 엘리베이터 공간의 삭막함을 떼어낸 좋은 작품

□ 13번 안건: Monumental Mountain

- 관람 공간이 좁은 것은 아쉬움
- 작품성 좋음
- 작품은 무난하나 장소와 조화 부족
- 강렬한 시각적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작품
- 나름의 작품 위치 선정 기준은 공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공공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가격에 비해 좋은 작품성과 효과를 느낄 수 있음

<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발표>

오늘 17개 작품 중 1, 2-1, 3, 5, 6, 8, 9, 11-2, 12-1,2, 13번 안건이 승인되고, 나머지는 부결되었습니다.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결과에 이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9년 제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